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방송뉴스 보도 분석*

임양준**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회갈등 사안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 논란에 대하여 국내 방송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슈를 규명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운하 건설에 대한 보도방향으로는 방송 3사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립적 보도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보도 프레임의 특성으로는 MBC와 KBS 뉴스는 정부의 정책집행 프레임 비율이 높았으며, SBS는 정치논리 프레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운하 건설 주체이자 적극 찬성집단인 정부·여당의 경우, 정치논리와 정책집행 프레임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대운하 반대집단인 민주당 등 야당과 사회·시민단체의 경우, 정치논리와 생태환경 프레임의 비율이 두드러졌다. 방송시별 틀 짓기 행위 프레임의 특징으로 MBC 뉴스의 경우 실체프레임의 비율이 높았으며, KBS와 SBS 뉴스는 정부·여당의 열망프레임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결과적으로 특히 KBS와 SBS 뉴스는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정부·여당의 권위적 대운하 정책집행과 열망논리로 일관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주제어: 4대강 살리기, 한반도 대운하, 국책사업 갈등, 뉴스 프레임, 사회적 갈등

1. 문제의 제기

현재 한국사회는 갈등사회라고 불릴 만큼 공공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갈등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유형은 지역, 세대, 교육, 젠더 그리고 소수자 등 사회 전 범위에 걸쳐 있다. 우리사회에서 갈등의 특성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집단형태를 띠고 있으며 불법적이고 과격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윤인진, 2008).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사회갈등이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언론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협상과 타협에 대한 위험성과 우려를 강조할 수 있으며, 갈등의 당사자에 대해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할 수도 있다(Wolfsfeld, 2001). 이와 반대로 언론은 타협과 화해가 가져올 이점을 강조하거나 갈등당사자들에게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화해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갈등상황에서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과 주장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냄으로써 건전한 여론의 조성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사회적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다(우병동, 2005). 이를 위해서 언론은 갈등 이슈와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야하며,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적 지지를 지양하고 균형적인 보도방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언론이 갈등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은 갈등관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발성 사건으로

* 본 연구는 한반도 대운하의 언론보도에 대한 연속연구의 일환으로 동 저자의 “공공사업 관련 사회적 갈등보도에 대한 뉴스프레임 분석: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한국언론정보학보 49호)와 유사한 연구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tenroses@naver.com)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김동규, 2000). 즉 갈등의 원인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대신, 밖으로 드러난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순보도는 갈등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원인을 제공하기 보다, 부정적이고 갈등적인 현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건중심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흘러가는 문제점이 있다(김동규, 2000).

이런 사회적 갈등보도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발생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논란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공공갈등 사안이다. 단군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국책사업으로 알려진 대운하 건설 문제는 정치권과 국민이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져 논란이 뜨겁다. 찬성집단인 정부와 여당은 대운하 건설이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¹⁾일 뿐만 아니라, 19만 개 일자리 창출로 2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조 9천억 원의 홍수 피해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²⁾ 그러나 반대 측 입장인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대운하 건설이 환경적 문제점 등이 너무 많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사업이며, 또한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수십조 원을 들이는 건 결국 나라경제가 망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

정부 언론정책의 기본방향은 규제와 육성, 견제와 보호에 있다. 정부는 사적과 공적인 언론조직에 대해 그것이 자칫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특정 매체가 자사의 사주나 그가 선호하는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최경자, 2003).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언론과 관련한 정치적 행보는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현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계 인사들의 소위 낙하산 사장 논란에 휩싸인 MBC 방송과 KBS 방송 그리고 YTN 방송사장,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현 정부의 언론간섭과 통제에 의한 언론사들의 친정부 편향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임양준, 2009).

본 논문은 정부가 갈등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국민적 갈등이 큰 한반도 대운하 건설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사회적 갈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주체들의 주장이나 입장에 따른 문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적 영향력이 큰 방송보도를 바탕으로 대운하 관련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어떠한 이유와 명분에 따른 각기 상반된 입장을 주장 하는지 규명해 보는 데 주목적이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대운하 관련 방송보도 프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통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의 올바른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SBS 8시 뉴스>, (2008.12.29.). 한승수 총리 4대강 살리기는 한국형 뉴딜 사업.

2) <MBC 뉴스데스크>, (2008.12.15). 4대강 정비 환경단체, 야당 반발.

3) 이태희 (2008.3.27). 내 공약을 내 공약이라 부르지 못하고 『한겨레21』, 9~13.

4) 사회적 갈등에 대한 방송보도 태도는 방송사의 소유구조와도 관련이 깊다. MBC와 KBS는 공적소유 방송사이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KBS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방송사 소유구조에서 가장 큰 논란은 언제든지 정부가 사장, 이사선임 등을 통해 경영과 편성에 관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진의 선임 절차와 방식이 방송법에 명시되지 않아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김승수, 2004). 이는 곧 방송이 정부관련 의제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이론적 배경

1) 갈등보도 뉴스 프레임

언론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프레임을 통해 전달한다(Pan & Kosicki, 1991; Entman, 1993). 특히 사회현안을 다룬 보도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레임을 포함하며, 이것은 뉴스 소재의 선택부터 특정 시각의 강조와 축소, 배제 등의 뉴스 구성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Bennett, 1988; Pan & Kosicki, 1991; Entman, 1993). 뉴스 프레임은 텍스트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허용하면서 다른 의미들을 억압하며(Entman, 1993), 다중적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 하나의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이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프레임의 반복적 사용은 사회 구성원들이 현실을 해석할 때 결부시킬 수 있는 증거 틀을 제공하여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 일정한 유형의 판단이나 의견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보도에서 특정 뉴스 프레임의 사용은 한 집단의 정당성 획득을 촉진할 수도 있고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양정혜, 2001). 따라서 뉴스 프레임은 언론의 사회적 현실구성과 의미생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갈등보도 프레임 연구에 의하면, 언론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소수의 뉴스 프레임에 의존해 사회적 갈등을 의미화 한다. 갈등에 대한 설명 제시에서 언론보도는 갈등을 단절적인 사건의 집합체나 입장의 차이가 극명한 두 집단 간의 대립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Cohen, Adoni & Bantz, 1990; Gersh, 1992; Ryan, 1993; Schmidt, 1993). 언론보도는 갈등이 명확하게 공중의 시야에 드러나는 단계, 즉 파업이나 시위, 소송 등과 같은 가시적인 사건에만 주된 관심을 보이고 갈등이 벗어지게 된 원인이거나 반대세력의 동기에 대한 설명, 혹은 점차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으로서의 갈등에 대한 설명은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김동규(2000)는 이런 사건 중심적 보도와 갈등의 단순화 경향 이외도 사회갈등 보도 프레임의 특징으로서, 극단적인 이분법적 대립구도, 과어휘화, 그리고 부정적인 범주화와 전제 등으로 규정했다.

국내에서의 사회적 갈등 중 하나인 의약분업과 금융파업 보도)에서도 이러한 뉴스 프레임의 특징들이 나타났다(권혁남, 2001; 김동규, 2000; 양정혜, 2001; 이동형, 2000; 이재진, 2000). 의약분업에서 언론은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다루기보다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행위에 주로 관심을 보였고, 금융파업 보도에서도 노정(勞政)대결 양상으로만 프레임하여 문제의 본질에 대한 보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하여 지역 신문보도에 나타난 프레임의 경우, 신문 헤드라인 주제어로 방사성 폐기장을 즐겨 사용하여 핵 폐기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핵 폐기장 유치가 곧 지역발전이라는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최낙진, 2004).

이와 더불어 언론의 사회적 갈등보도는 법과 질서 프레임에 빈번히 의존함으로써 기존질서와

5) 의약분업의 경우, 정부에 의해 형성되고 방조되어 온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적임을 지적하는 의사들의 주장은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의사 전체행동이면의 경제적 동기와 폐업이라는 극단적 방법에만 주목해서 의사들을 ‘범죄자’나 ‘살인자’로 낙인찍혀 보도했다(양정혜, 2001). 또한 금융파업이 단순한 금융노조와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노정간의 대결 양상으로만 규정했다는 점, 파업은 안 된다는 파업위기를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 원인과 문제점 분석은 등한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형, 2000).

체계를 옹호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장용호, 1987; Wren-Lewis, 1981; Reese & Buckalew, 1995). 갈등에 개입된 집단들은 언론의 관심과 공중으로부터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정착시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법과 질서 프레임은 이러한 노력을 전개함에 있어서 사회적 규범이나 법의 준수가 우선적이고 또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되는 뉴스해석의 틀이기도 하다.

이렇듯 언론은 뉴스 프레임을 통해 갈등의 사회적 구성에 참여한다.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 뉴스 프레임에 제시되는 사회갈등의 세계와 현실 간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원으로서 언론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뉴스 속의 갈등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된 현실은 갈등의 새로운 현실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⁶⁾

2) 언론의 사회적 갈등보도 특징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나 주장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이다. 짐멜(Simmel, 1973)은 가치와 부족한 지위, 전력 그리고 자원에 대한 주장을 두고 벌어지는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크리스버그(Kreisberg, 1973)는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갖고 있는 두 개 이상의 편들 사이의 관계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최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정치적, 환경 그리고 지역 등의 영역에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경우,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공공갈등의 경우 첫째,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며 둘째, 다양한 사업주체 및 이익집단이 관여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셋째, 사업 결정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김현주, 1999). 다시 말해서 정부차원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쟁점들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갈등에서 시민사회 전체가 잠재적인 이해당사자가 된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치·경제·사회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갈등요소를 포함하는 언론보도는 갈등당사자들의 다원적 관점과 주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론이 하나의 취재원에만 의지해 기사를 생산할 경우, 편파적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확대 재생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보도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언론은 갈등이슈가 발생할 때, 그에 대한 원인이나 배경을 설명하기보다는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만 단순하게 보도한다는 것이다(Cohen, 1990). 언론의 사회갈등에 대한 보도프레임은 양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극히 단순화하고 사건중심으로 파편화하여 갈등의 강도를 물리적 중심으로 확대하여 과장한다(임현진, 2005). 이와 같은 사건중심의 단순보도는 갈등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부정적이고 갈등적인 현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주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것이 특징이다(황치성, 2008).

최근 국내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슈미트(Schmidt, 1993)의 경우 미국의 노동조합과 파업행위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연구에서 노동조합에

6) 이런 현상은 ‘미디어 의존이론’의 주장처럼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김동규, 2000).

대한 미디어의 보도는 다른 부분보도 파악에 더욱 집중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미디어는 파악의 빈도를 과장하는데, 이러한 과장은 국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송정민(1992)은 우리나라 언론의 노사관련 뉴스보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노동자의 과격성과 폭력성을 위주로 한 보도로서 노동자는 사회의 질서나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묘사, 둘째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를 비합리적이고 억지인 것으로 보도하거나, 제반행위를 문제 집단의 행위로 보도하는 관행, 셋째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파악하여 노동자의 물질적 요구에 보도의 초점을 맞춤, 넷째 노동자는 민주적인 원칙인 대화나 타협을 부정한다는 식의 보도, 다섯째 노동자의 주장이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데 강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군태·송기인(2005)은 보도프레임이 이해당사자들의 극단적인 대립·분쟁·다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갈등문제가 이해당사자들에게만 국한 된다는 인상을 주는 프레임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갈등내용의 표현방식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보도내용이 일반 독자나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다. 즉 언론 외에 별다른 정보원을 갖지 못하는 일반 사회구성원들은 뉴스 속에 갈등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그렇게 인식된 현실이 갈등의 새로운 현실 구성에 관여하게 된다(김동규, 2000). 따라서 이슈에 대해 뉴스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 부정적, 혹은 중립적일 수 있다.

갈등적 이슈에 대해 언론이 사실을 제시하는 방식이나 입장을 달리한다면, 즉 뉴스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게 되면, 뉴스 수용자는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이준웅, 2002). 이는 방송사가 자사의 사시나 이념에 동조하는 주요행위자나 인터뷰 대상자에게 의탁하여 자사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보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방송사의 뉴스원 혹은 행위자에 따라 뉴스프레임이 다르게 형성되어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나미수, 2004; 김원용·이동훈, 2005; 임양준, 2010). 결국 이러한 방송의 특정 프레임의 반복적 사용은 사회적 갈등의 쟁점에 대한 수용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 논란을 포함한 우리 사회 내 집단들의 갈등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어떤 집단을 그리고 어떤 갈등이슈를 중심화시켜, 갈등의 본질과 문제 해결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언론이 사회갈등의 틀 짓기 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사안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주요 방송사들의 보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즉 방송사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통하여 어떠한 특정 행위자집단의 주장을 대변하는지, 그리고 행위자집단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강조하여 보도하면서 대운하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기틀을 유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반도 대운하 관련 뉴스보도의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한반도 대운하 관련 뉴스 보도에서 사용된 뉴스프레임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뉴스 보도에서 이해집단인 주요 행위자들은 어떻게 틀 지워졌는가?

연구문제 4: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이익집단간의 틀 짓기 행위 프레임은 방송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분석대상과 기간

본 연구는 문화방송(MBC)의 <9시 뉴스데스크>, 한국방송공사(KBS)의 <9시뉴스>, 그리고 서울방송(SBS)의 간판뉴스인 <8시뉴스>를 대상으로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 뉴스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저녁뉴스는 방송의 대표적인 종합뉴스로서 하루의 뉴스를 정리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시청률이 높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주정민, 2008). 또한 분석기간을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선택한 이유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하여 입안과 주도적인 실행의지를 보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위해 분석된 보도뉴스의 양은 MBC-TV의 <뉴스데스크>가 91건(42.2%), KBS-1TV의 <9시뉴스>가 71건(32.1%), 그리고 SBS-TV의 <8시뉴스>가 59건(26.7%)으로 총 221건이었다.⁷⁾

3) 뉴스프레임 분석틀과 절차

(1) 보도기사 프레임

언론보도에 대한 뉴스프레임 분석은 다양한 연구에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들 사이에서는 프레임에 대한 개념정의, 프레임 방식, 프레임 효과 등 프레임의 이론 및 방법상의 정의 등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양정혜, 2001; 박선희; 김선남, 2002). 따라서 기존의 뉴스관련 프레임 연구를 살펴보면, 언론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가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뉘어 수행되어졌다(양정혜, 2001; 김원용·이동훈, 2005; 이형준, 2006; 원만해·채백, 2007).

그러나 본 연구 분석의 특성상 한반도 대운하 관련 뉴스분석에 있어 형식적인 프레임 분석 측면보다 내용적 프레임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뉴스 내용적 측면의 프레임 분석은 갠슨(Gamson, 1992)과 엔트만(Entman, 1993)의 분석방법에 따라 뉴스 텍스트에서 선택되고 강조되는 의미를 중심으로 내제되어 있는 핵심적인 구성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개별 프레임을 개념화 한 것이다. 본 연구인 대운하 보도의 경우, 방송뉴스에 보도된 대운하 관련기사들을 대상으로 뉴스 틀을 구성하는 데 주요 기제로 작용하는 단어나 문구를 배열하는 패턴, 뉴스에 대한 주제 구조, 문체에 대한 수사적인 구조, 그리고 사건이나 행위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와 수식어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의미가 일관되게

7) 본 연구대상으로는 MBC, KBS 그리고 SBS의 각 방송사 홈페이지의 방송보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반도 대운하’, ‘대운하’ 그리고 ‘4대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송자료를 전수 검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함.

의미하는 지배적인 뉴스 틀을 도출하였다. 이 방법은 특정이슈에 관련된 개별 뉴스기사를 분석함에 있어 모든 가능한 프레임을 포함시키는데 의미를 둘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이 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강내원, 2001).

이에 따라 총 221개의 보도 기사들을 분석한 후, 여섯 개의 뉴스프레임 구성요소들로 유형화 하였다.⁸⁾ 이들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① 정책집행 프레임

정책집행 프레임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국민의 광범위한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대운하 건설을 위한 대통령의 권위적인 집행의지, 여당의 독선적인 정책, 그리고 각 행정부처의 일방적인 조치 등과 관련되어 보도되는 기사이다.

② 생태·환경 프레임

생태·환경 프레임은 대운하의 건설 예정지역 주변의 하천 환경의 생태계 보존 또는 파괴와 관련하여 수자원보호, 생물자원 보호, 환경 영향평가와 지형변화 등과 관련된 인식과 중요성에 대한 보도내용이다.

③ 경제결과 프레임

지방 건설사 참여로 인한 지역 경기 부양론, 물류비용 감소, 땅값 폭등,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 프레임은 대운하 건설이라는 국책개발 사업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나 부담, 손실 등과 관련된 프레임으로 지방정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실효성 등에 대한 장·단점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기사이다.

④ 안전성 프레임

안전성 프레임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로 인한 풍랑에 의한 항만피해, 홍수위험 가능성, 수돗물 대란, 식수부족 사태 등과 관련하여 대운하 건설 결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한 보도내용이다.

⑤ 정치논리 프레임

정치적 논리 프레임은 대운하 건설문제에 대한 사안을 정치적 문제로 처리하거나 해결하려는 프레임이다. 정치적 성향은 대운하 실체와 정책과정에서 특히 4·19총선 기간 중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거센 정치적 반발에 따른 여당 후보자 득표율을 의식하여 자주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운하 총선 혼드나”, “대운하 정치파장 최소화” 그리고 “대운하 반대가 선거법 위반?” 등이다.

⑥ 지역현안 프레임

한반도 대운하 건설관련 보도 가운데 특히 지역관련 중점보도로서 대운하 건설로 인한 지방 농경정책 발전, 지역문화 육성, 지역 농업환경 개선 또는 지역 생태계 등과 관련한 보도내용이다.

8) 신뢰도 검증을 위해 각 방송사별로 분석대상인 보도기사의 15%인 33건씩 총 99건의 기사를 무작위로 표집 하였다. 무작위 표집을 대상으로 대학생 분석자 두 명이 각각 코딩한 다음, 상호간의 평균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종합적 신뢰도 계수(차배근, 1990)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종합 신뢰도 계수는 0.81로 산출됨.

9) 프레임 분류는 각각의 방송보도 기사에서 주(主) 프레임과 부(副) 프레임을 포함하여 집계하였음.

(2) 보도뉴스의 방향

방송보도가 대운하 건설 관련 뉴스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보도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전체적인 보도내용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 입장일 경우, ‘긍정’으로, 방송이 화자의 주체가 되어 특정 행위자나 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문제를 지적했을 경우, ‘부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팩트 중심의 정보를 사실적으로 보도하거나 별도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긍정 또는 부정입장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는 ‘중립’으로 규정하였다.

(3) 주요행위자 집단

대운하 건설 관련 뉴스보도에 나타난 주요행위자들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어떤 행위자나 집단이 비중 있게 등장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뉴스보도를 통해 기자들이 인용한 사람 혹은 집단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운하 건설 관련 이슈가 주로 누구의 입장과 시각을 통해 틀지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행위자의 경우, 대운하 관련 보도기사에 등장하는 모든 정보원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다시 각각의 보도비율에 따라 범주화 하였다. 구체적인 주요행위자들로 정부·여당, 야당, 사회·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집단 등 모두 여덟 집단으로 구분하였다.¹⁰⁾

(4) 주요이해집단의 틀 짓기 행위

프레임 연구는 분석수준에 따라 개인과 집단으로 구분된다(주경일, 2005). 집단 수준의 프레임(collective action frame)은 해당 집단이 그들의 수사적 주장의 유사성을 통해 해당 이슈를 동질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집단행동의 전체로서 행동 지향적 믿음이나 의미들의 총합체를 의미하며, 따라서 갈등상황에서 표출되는 각 이해집단의 틀 짓기 행위(framing activity)는 행동의 정당화를 위해 이러한 프레임을 제시하는 수사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틀 짓기 행위는 갈등 상대방과 청중들에게 주요 이슈의 해석이 자기편에 우호적으로 의미부여 되도록 하는 전략적 행위가 되며, 이해집단의 근본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행동전략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 보도에 대한 집단수준 프레임 측면에서 방송사가 주요 행위자집단의 주장을

10) 방송보도를 통해 나타난 주요행위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정부·여당: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인수위원장, 국토해양부 장관,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본부장, 환경부 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국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행정부와 여당 관계자.
- ② 통합민주당 외(야당): 민주당 대표,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원내대표, 민노당 정책위원장, 진보신당 원내 대표, 창조한국당 정책위원장, 민노당과 자유선진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 등.
- ③ 사회·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합동사무처, 4대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사업 워킹그룹을 위한 국민소송단, 운하백지화 공동집행위원회, 낙동강 공동체, 녹색연합 등 환경과 관련된 비정부 단체와 시민 단체 등을 포함.
- ④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경인운하), 경상도(낙동강 운하), 전라도(영산강 운하), 충청도(금강 운하) 등 지역 운하 건설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
- ⑤ 기업: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 건설회사 그리고 운송업체 관계자 등.
- ⑥ 일반국민: 농민, 마을이장, 하회마을 회장 등 일반시민 및 대운하 건설지역 주변 거주 주민 등.
- ⑦ 전문가 집단: 동아시아 문화재 연구원, 문화재 위원 등을 포함한 대운하 건설과 관련 문화재, 해양수질, 지질, 생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연구원과 변호사 등.
- ⑧ 기타: 부동산 중개업자, 언론사 기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 관계자 등.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며, 논조를 정당화시키고 있는지 이러한 갈등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대운하에 대한 주요행위자 집단의 이해관계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어떠한 프레임으로 표출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레이와 도넬론(Gray & Donnellon, 1989)의 틀 짓기 행위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표 1> 주요행위자 집단의 틀 짓기 개념과 사례

차원 \ 입장	정의	대운하 찬성집단 사례	대운하 반대집단 사례
실체 (Substantive)	무엇에 대한 갈등분쟁인가?	효율적인 국토이용 위해 개방형 '초광역 개발' 추진	특정 건설업체만 특혜로 배분될 것
성과 (Outcome)	추구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녹색성장으로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
열망 (Aspiration)	왜 그러한 성과를 추구하려고 하는가?	대통령이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일 것/ 내각은 돌격내각 전폭 지원	경인운하 경제적 보고서는 가짜
손익 (Loss-gain)	손해나 이득에 대한 결과 인식은 무엇인가?	일자리 19만 개 창출/ 23조 원의 경제 기대효과	환경을 망쳐 하늘의 대재앙을 불러들임
특성 (Characterization)	갈등상대의 태도와 형태에 대한 평가, 기대는 무엇인가?	역사상 어떤 도전도 반대가 없었던 적은 없음	국책연구기관(KDI)을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논리 개발에 이용
과정 (Process)	갈등과정과 절차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어떠한가?	전국토를 거대한 공사장처럼 밀어붙일 것	정부와 국토해양부 대운하 추진단 몰래 운영 들통

출처: Gray, D. & Donnellon, A. (1989). *An interactive theory of reframing in negotiation*.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265 참조·수정 하여 사용함.

4. 연구결과

한반도 대운하 관련 보도뉴스의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뉴스(75.1%)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해설기사(10.4%)와 단신기사(7.7%)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 보도비율이 높은 원인은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논란의 대상인 대운하 건설에 대한 사실 정보를 제한된 시간 내에 전달해야하는 방송뉴스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방송사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 비율은 SBS 뉴스(79.7%)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MBC(78.0%) 그리고 KBS(67.6%) 뉴스로 나타났다. 해설기사는 MBC 뉴스(12.1%), KBS(9.9%) 그리고 SBS뉴스(6.8%)로 조사되었다. 단신의 경우, KBS(12.7%), SBS 뉴스(6.8%) 그리고 MBC 뉴스(4.4%)로 나타났다. 결국 스트레이트 기사는 SBS 뉴스가, 그리고 해설기사와 단신은 KBS 뉴스의 비율이 높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송 3사가 보도한 스트레이트 기사와 단신보도의 비율은 75.1%로 매우 높은 반면, 해설기사와 기획기사는 평균 8.8%로 매우 낮았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논란의 대상인 대운하 건설에 대하여 방송이 심층적인 접근 방식의 보도보다,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보도로 일관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표 2> 방송뉴스의 유형

단위: 건수 (%)

방송사 \ 뉴스유형	MBC	KBS	SBS	합계
스트레이트	71 (78.0)	48 (67.6)	47 (79.7)	166 (75.1)
해설기사	11 (12.1)	7 (9.9)	4 (6.8)	23 (10.4)
기획기사	5 (5.5)	7 (9.9)	4 (6.8)	15 (6.8)
단신보도	4 (4.4)	9 (12.9)	4 (6.8)	17 (7.7)
합계	91 (100.0)	71 (100.0)	59 (100.0)	221 (100.0)

$\chi^2 = 5.54, df=6, p < .05$

1) 방송 뉴스보도 방향별 분석

한반도 대운하 논란에 대한 방송사별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뉴스보도에 대한 방향별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방송사들의 입장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찬성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BC 뉴스의 경우 대운하 건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의 비율(69.2%)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립(26.4%) 그리고 긍정(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MBC가 타 방송사에 비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하여 가장 강한 반대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KBS와 SBS 뉴스의 경우, 대운하 건설에 대한 보도는 반대 입장보다 사건 중심의 중립적 보도 입장¹¹⁾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S 뉴스의 경우, 비고대상 방송사 가운데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35.2%)보다 중립적 보도(57.7%)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방송뉴스의 방향

단위: 건수 (%)

방송사 \ 뉴스방향	MBC	KBS	SBS	합계
긍정	4 (4.4)	5 (7.0)	7 (11.9)	16 (7.2)
부정	63 (69.2)	25 (35.2)	21 (35.6)	109 (49.3)
중립	24 (26.4)	41 (57.7)	31 (52.5)	96 (46.2)
합계	91 (100.0)	71 (100.0)	59 (100.0)	221 (100.0)

$\chi^2 = 27.12, df=4, p < .05$

11)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한 사건 중립적 보도 성향이라 함은 터크만(Tuchman, 1972)의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사안이 일반적으로 보도되면 나머지 당사자는 불만을 호소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기 일쑤여서, 상반된 가능성의 제시(presentation of conflicting possibilities)를 통한 균형 맞추기는 그런 잠재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기제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남재일, 2004).

2) 방송보도에 나타난 뉴스프레임의 특성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방송뉴스 프레임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먼저 보도뉴스프레임에 대한 전체 보도 기사량을 살펴보면, 정책집행(28.1%), 정치논리(24.2%) 그리고 생태환경(15.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안전성(9.0%)과 지역현안(9.4%)프레임은 매우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대운하 보도와 관련된 방송사별 보도뉴스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BC의 경우 타 방송사에 비해 안전성(23건)과 지역현안(26건)에 대한 보도건수가 대체로 많았다. 이는 MBC가 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운하는 완전히 낭비, 경제적 없고 이용 가능성 없어”, “안동댐, 임하댐 방류로 하회마을 잠겨” 그리고 “낙동강 하류, 함안보(洑) 설치로 저지대 농경지 침수” 등 대운하 건설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보도가 많았다고 풀이 할 수 있다. 또한 MBC는 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지역문화, 지역 생태환경 등 지방현안과 관련한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의 경우, 뉴스프레임의 특성으로 정책집행(64건)과 생태환경 프레임(31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상 방송사 가운데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중립적 비율이 가장 높았던 KBS의 경우, 정책집행 프레임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 대운하 단계적 추진”, “대운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민간 건설사 위주 대운하 추진” 등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전문가를 통한 경제적 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 그리고 국민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등 민주주의적 여론수렴 절차 등의 문제를 등한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집행에 대한 이점을 강조하여 보도하였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 보도비율이 가장 높았던 SBS의 경우, 정치논리(46건)와 경제 프레임(18건)의 비율이 대체로 높았다. SBS의 경우, 대운하 건설이 “대운하 정치논쟁 중단”, “낙동강,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안 돼” 그리고 “대운하 문건 총선 흔드나” 등 정치적 논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는 대운하 건설 결과로 발생하는 “4대강 정비로 인한 매년 홍수피해와 복구액 7조원 절약”, “4대강 사업 통해 일자리 19만개 창출”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 신규 일자리와 40조원 생산효과 기대” 등 대운하 건설 결과에 따른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측 주장을 지지하는 보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방송사별 프레임 유형

단위: 건수 (%)

프레임 \ 방송사	MBC	KBS	SBS	합계
정책집행	58 (26.0)	64 (41.6)	15 (13.5)	137 (28.1)
생태·환경	32 (14.3)	31 (20.1)	12 (10.8)	75 (15.4)
경제결과	33 (14.8)	13 (8.4)	18 (16.2)	64 (13.1)
안전성	23 (10.3)	11 (7.1)	10 (9.0)	44 (9.0)
정치논리	51 (22.9)	21 (13.6)	46 (41.1)	118 (24.2)
지역현안	26 (11.7)	12 (7.8)	8 (7.2)	46 (9.4)
기타	0 (0)	2 (1.3)	2 (1.8)	4 (8)
합계	223 (100.0)	154 (100.0)	111 (100.0)	488 (100.0)

$\chi^2 = 54.17, df = 12, p < .05$

3) 뉴스보도의 주요행위자 분석

언론이 자신들의 이념을 전개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유사한 성향의 정보원을 통해 의견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언론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뉴스 면에 직접적으로 내보내기 보다는 사실, 특집기획 그리고 논평 등 의견 면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암묵적으로 개진하기도 한다(심훈, 2004). 특히 사설란 등과 같은 의견 면이 없는 방송은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주요행위자나 인터뷰 대상자에게 의탁하여, 그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자사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Herman & Chomsky, 2002). 따라서 언론사는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 자사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나 이해집단에 의탁함으로써 언론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사의 의미를 전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요행위자에 의해 생성된 담론은 방송보도 내용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각 방송사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뉴스보도를 전달하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시민단체 등 주요행위자의 주장과 입장을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도했는지 살펴보았다.

(1) 주요행위자 빈도수

전체 분석대상 뉴스보도 가운데 주요행위자로서 정부·여당(47.1%)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민주당 등 야당(16.8%) 그리고 사회·시민단체(11.9%) 순이었다. 그러나 일반국민(3.7%)과 기업(3.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4.5%)는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MBC와 SBS뉴스의 경우, 정부·여당의 보도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민주당 등 야당 등도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특성을 살펴볼 때, 정부·여당의 비율이 전체보도 빈도의 약 절반 정도(47.1%)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대운하 성격상 정부와 여당이 건설 주체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자로서 자주 보도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운하 건설에 대한 하천 바닥 준설 깊이, 보(洑)의 개수와 높이 그리고 막대한 액수의 사업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회·시민단

체(11.9%)와 일반국민(3.7%)의 보도비율이 낮은 것은 방송이 사회적 갈등이슈를 종합적이고 균형적 보도보다는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5> 방송사별 주요행위자

단위: 빈도 (%)

주요행위자 \ 방송사	MBC	KBS	SBS	합계
정부·여당	102 (45.7)	73 (47.4)	55 (49.5)	230 (47.1)
민주당 등(야당)	46 (20.6)	19 (12.3)	17 (15.3)	82 (16.8)
사회·시민단체	25 (11.2)	22 (14.3)	11 (9.9)	58 (11.9)
전문가집단	19 (8.5)	18 (11.7)	10 (9.0)	47 (9.6)
기업	7 (3.1)	6 (3.9)	4 (3.6)	17 (3.5)
지방자치단체	11 (4.9)	6 (3.9)	5 (4.5)	22 (4.5)
일반국민	8 (3.6)	6 (3.9)	4 (3.6)	18 (3.7)
기타	5 (2.2)	4 (2.6)	5 (4.5)	14 (2.9)
합계	223 (100.0)	154 (100.0)	111 (100.0)	488 (100.0)

 $\chi^2 = 8.13, df = 14, p < .05$

(2) 주요 행위자집단의 프레임 구성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방송 뉴스보도를 통해 나타난 주요행위자집단의 프레임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먼저 대운하 건설에 대한 추진세력이자 적극적인 찬성집단인 정부·여당의 경우, 정책집행(79건)과 정치논리(45건)의 빈도수가 많았다. 그러나 대운하 반대집단인 야당의 경우 정치논리(32건), 그리고 사회·시민단체는 생태·환경 프레임(10건) 빈도수가 많았으며, 전문가 집단은 안전성 프레임(9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요 행위자집단별 특성을 요약하면, 정부와 여당의 경우 대운하 반대집단이 제기하는 생태·환경이나 경제적 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득 대신, 정치논리를 바탕으로 한 권위적 정책집행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집단인 야당의 경우, 정치논리와 정책집행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정부·여당의 권위적 정책집행과 정치논리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운하 건설과 관련한 안전성문제와 여론수렴과정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한 보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송은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집단이 서로 주장하는 단순 의제만을 강조하여 보도하는 자세를 배제하는 대신, 안전성과 경제적 결과 그리고 여론수렴 과정을 포함한 정책집행 문제점 등 대운하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갈등이 유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제설정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6> 주요 행위자집단 분석

단위: 빈도(건수)

행위자집단 \ 프레임	정책 집행	생태·환경	경제 결과	안전성	정치 논리	지역 현안	합계
정부·여당	79 (65.8)	31 (39.7)	26 (40.6)	13 (22.4)	45 (42.9)	17 (27.0)	211 (43.2)
민주당 외(야당)	11 (9.2)	10 (12.8)	9 (14.1)	8 (13.8)	32 (30.5)	9 (14.3)	79 (16.2)
사회·시민단체	9 (7.5)	10 (12.8)	9 (14.1)	9 (15.5)	8 (7.6)	10 (15.9)	55 (11.6)
전문가집단	8 (6.7)	6 (7.7)	6 (9.4)	9 (15.5)	7 (6.7)	6 (9.5)	42 (8.6)
기업	7 (5.8)	7 (9.0)	8 (12.5)	7 (12.1)	1 (1.0)	7 (11.1)	37 (7.6)
지방자치단체	6 (5.0)	7 (9.0)	6 (9.4)	6 (10.3)	6 (5.7)	7 (11.1)	38 (7.8)
일반국민	0 (0)	7 (9.0)	0 (0)	6 (10.3)	6 (5.7)	7 (11.1)	26 (5.3)
합계	120 (100)	78 (100)	64 (100)	58 (100)	105 (100)	63 (100)	488 (100)

 $\chi^2=83.58$, $df=30$, $p<.05$

4) 방송사별 주요 행위자집단의 틀 짓기 행위 분석

대운하 관련 보도를 통해 각각의 분석대상 방송사별로 프레임에 따라 어떤 주요행위자가 등장하며, 이들은 관련이슈에 대한 어떠한 입장과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1) MBC <뉴스데스크> 틀 짓기 행위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가장 빈번하게 보도된 주요행위자는 정부·여당(105건)로 나타났다. 이어서 민주당 등 야당(46건), 그리고 사회·시민단체(25건) 순이었다. 특히 MBC 뉴스는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집단(사회·시민단체·야당·일반국민)의 보도비율(80건)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BC 뉴스가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집단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주요행위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보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 보도기사 비율이 가장 많았던 MBC 뉴스의 틀 짓기 행위프레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운하 건설주체이며 찬성론자인 정부·여당 입장으로 열망(44건)과 실제프레임(17건)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¹²⁾ 이는 정부의 대운하 건설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MBC뉴스가 대운하 건설에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불합리한 열망과 성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열망프레임에 대한 MBC 뉴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운하…오락가락 청와대 말 바꾸기”(2008.6.3), “4대강 정비…의심하는 이유”(2008.12.15), 그리고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 틀린 내용 수두룩…논란”(2009.2.5) 등이다. 또한 실제프레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4대강 치수는 사실상 대운하…정부 문건으로 확인”(2008.5.28), “대운하 폭로 파문…정부가 반박논리 요구”(2008.5.24) 그리고 “민간사업 대운하…사실상 정부주도”(2008.5.19) 등으로 나타났다.

MBC 뉴스를 통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행위자집단은 야당(46건)과 사회·시민단체(25건)로 조사되었다.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과정프레임(13건)과 실제(12건)프레임을 강조하여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BC 뉴스는 정부의 대운하 건설과정의 문제점을

12) 행정부·여당의 평균비율임.

보도하면서 22조 원짜리 초대형 국책사업이 해당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보(洑)설치 계획이 추진되는 바람에 국가의 공신력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과정보레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4대강 사업 ‘사전 환경평가 부실’ 비판”(2009.10.6), “4대강 사업 10일 보 공사 착수…끊이지 않는 논란”(2009.11.8) 그리고 “4대강 공방가열, ‘공사촉구’ vs ‘탄핵’”(2009.11.11) 등이다. 이와 더불어 실체프레임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간사업 대운하…사실상 정부주도”(2008.5.19), “4대강 치수는 사실상 대운하…정부문건 확인”(2008.5.28), 그리고 “4대강 정비의심…하는 이유는?”(2008.12.15)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7> MBC 뉴스데스크의 틀 짓기 행위 분석

단위: 빈도(건수)

행위자집단 \ 프레임	실체	성과	열망	손익	특성	과정	기타	합계
정부·여당	17	10	44	9	6	10	9	105
민주당 외(야당)	12	2	1	6	7	13	5	46
환경단체	4	1		6	3		1	15
사회·시민단체	5	1		11	3	2	3	25
기업		5		2				7
지방자치단체								0
일반국민		3		4			2	9
기타		4	3	4		1	1	13
합계	40	25	49	42	16	29	22	223

(2) KBS <9시뉴스> 틀 짓기 행위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중립적 사건중심의 보도성향 비율이 가장 높은 KBS 뉴스는 건설추진 집단인 정부·여당(75건)의 보도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반대집단인 사회·시민단체(25건)와 전문가집단(17건)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대운하 건설 완공을 목표로 비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경우, 열망(30건)과 성과(14건)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KBS는 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찬성 또는 반대 등 자사(自社)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정부·여당의 찬성주장을 단순사실로 포장하여 전달하는 뉴스보도가 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 ‘대운하, 적극 홍보로 정면 돌파’”(2008.6.1), “이 대통령 ‘4대강 정비사업 바로 착수해야’”(2008.12.15) 그리고 “이 대통령 ‘4대강, 정치논리 좌우 안 돼’”(2009.11.22) 등이다.

또한 KBS는 대운하 건설결과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 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증 없이 정부·여당의 주장을 우호적으로 강조하여 보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충청·호남운하는 뱃길 복원”(2008.1.18), “4대강 살리기 시동…2012년까지 14조 투입”(2008.12.15) 그리고 “대운하 정비사업 이렇게 진행된다”(2009.4.27) 등이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대운하 건설이 녹색성장 사업이자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며, 완공 후에는 대한민국의 격(格)과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성과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요행위자 집단으로는 사회·시민단체(21건)와 전문가 집단(1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집단의 경우, 대운하 건설 반대에 대한 틀 짓기 행위 프레임은 공통적으로 손익 프레임으로 조사되었다. 손익 프레임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수원 오염 vs 수질개선”(2008.1.19), “주변 문화재 훼손우려“(2008.1.19) 그리고 ”4대강 보, 멸종위기 동식물에 악영향 우려“(2009.8.6) 등이다. 그러나 KBS 뉴스는 반대집단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면서, 4대강 사업은 정부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지발언을 하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강조하여 보도하였다.

<표 8> KBS 9시뉴스의 틀 짓기 행위 분석

단위: 빈도(건수)

이해집단 \ 프레임	실체	성과	열망	손익	특성	과정	기타	합계
정부·여당	8	14	30	7	4	4	6	75
민주당 외(야당)	6	1	5	2		1		20
사회·시민단체	6	7	2	8	1		2	21
전문가집단	2	2	2	8	2		1	17
기업	1	2	1	2			1	5
지방자치단체				2			2	4
일반국민		1		2	1			4
기타		2	2	1		3		8
합계	23	29	32	32	8	8	12	154

(3) SBS <8시뉴스> 틀 짓기 행위

SBS 뉴스 보도에서는 정부·여당이 주요 행위자집단으로서 매우 높은 비율(55건)로 나타났으며, 야당(27건)이 대체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2건)와 일반국민(2건), 그리고 사회·시민단체(8건)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SBS 뉴스를 통해 보도된 이해집단별 틀 짓기 행위 프레임을 살펴보면, 열망(25.2%건), 실체(17.1%) 그리고 특성프레임(16.2%)으로 조사되었다.

행위자 집단별 틀 짓기 행위 프레임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부·여당 측의 경우 열망(24건)과 특성프레임(9건) 보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BS 뉴스에 반영된 대운하 관련보도가 행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열망에 대한 보도뿐만 아니라, 대운하 관련 찬성과 반대 집단 간에 평가와 기대인 특성프레임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많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먼저 행정부와 한나라당의 열망프레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MB ‘4대강 살리기는 의무다’...사업 완수의지”(2009.4.27), “이 대통령 ‘강과 바다 제대로 활용해야 선진국’(2009.5.6) 그리고 “대운하 공사 어떻게?...‘청계천처럼 추진한다’(2008.1.2) 등이다. 즉 정부여당의 대운하 건설은 지방경제 살리기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보도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특성프레임에 대한 사례는, “4대강 사업 대치격화...‘예산심의 험로’ 예고”(2009.11.10), “4대강 예산안 심의 ‘지연’...여야, 또 ‘네 탓 공방’(2009.11.18) 그리고 “‘4대강 예산 절충 4자 협의’ 시작...기 싸움여전”(2009.12.23) 등이다. 이는 대운하 건설 사업이 녹색성장 등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로 G-20 정상회의에서도 경제 살리기의 대표사업으로 평가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내용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등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경우, 대운하 보도에 대한 실체프레임의 비율이 높았다. 실체프레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운하 문건’ 총선 흔드나…정국 쟁점부상”(2008.3.28), “‘대운하 반대’ 아래 뭉치자…야권 전 방위 공세”(2008.3.30) 그리고 “4대강 정비 사업이 흑시?...대운하 재추진 공방”(2008.12.10) 등이다.

또한 전문가집단의 손익프레임으로는 “정부, 경인운하사업 ‘경제성 과장’ 의혹”(2009.2.23), “꼬리 무는 경인운하 ‘허점’...경제성 부풀려 계산”(2009.2.26), 그리고 “대운하 공사 어떻게?...청계천처럼 추진한다”(2008.1.2) 등이다. 전문가 집단은 대운하 건설과정에서 국민여론과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9> SBS 8시뉴스의 틀 짓기 행위 분석

단위: 빈도(%)

행위자집단 \ 프레임	실체	성과	열망	손익	특성	과정	기타	합계
정부·여당	7	4	24	1	9	5	5	55
민주당 외(야당)	11	3			9	1	3	27
사회·시민단체				7			1	8
전문가집단	1	1		9				11
기업		1	1					2
지방자치단체			1				1	2
일반국민							2	2
기타		1	2			1		4
합계	19	10	28	17	18	7	12	111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의 하나로 참여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이슈를 텔레비전 뉴스보도가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고 해석·평가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스프레임 분석방법을 선택하여 대운하 건설문제에 대한 국내 텔레비전 뉴스보도에 나타난 지배적인 프레임은 무엇이며, 이슈에 대한 현실을 어떠한 입장과 시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대운하 관련 방송사별 뉴스보도 유형을 살펴보면, MBC는 해설기사가, KBS는 단신보도 그리고 SBS는 스트레이트 보도뉴스의 비율이 두드러졌다. 이는 대운하 건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MBC가 운하건설에 따른 안전성, 경제적 결과 그리고 여론수렴 절차 등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 해설기사 등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둘째, 보도방향을 살펴보면, 대운하 건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의 비율(49.3%)이 단순 사건중심의 중립적 입장(46.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셋째, 대운하 보도 프레임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MBC와 KBS 뉴스는 정책집행 비율(각각 26.0%와 41.6%)이, 그리고 SBS는 정치논리 프레임(41.1%)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MBC와 KBS의 경우, 대운하 건설이 사회각계각층의 여론을 등한시한 채, 대통령과 집권여당 등 일부 정치인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SBS의 경우, 대운하 건설관련 보도내용 중 적극적으로 부작용과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정치논리 관련 단순사실 전달보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요 행위자집단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정부의 비율이 전체보도 비율의 약 절반(47.1%)로 나타났으며, 반대집단인 야당·사회·시민단체(14.3%)의 비율¹³⁾로 매우 낮았다. 이는 방송사들이 정부·여당은 대운하 추진 주체와 역할을 고려하여 적극 보도한 반면, 반대집단인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국민(3.7%)의 주장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행위자집단의 프레임분석 결과, 정부·여당의 경우 정치논리와 정책집행 프레임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정부·여당이 반대집단인 사회·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대운하 건설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이해시키기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권위적인 정책집행에 대한 반발로 전문가집단 그리고 사회·시민단체로부터 생태환경, 경제적 결과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각 방송사별 틀 짓기 행위 프레임의 특징을 살펴보면 MBC 뉴스의 경우, 대운하 반대집단인 통일민주당 등의 야당은 민주절차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MBC가 정부의 권위적이고 정치적인 논리로 강행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의 실체 그리고 민주적 여론수렴 절차 문제점 등 건설과정에 대한 심층보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BS와 SBS 뉴스의 경우 정부의 열망프레임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KBS와 SBS 두 방송사가 대운하 건설에 따른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안전성 등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도하는 대신, 행정부와 한나라당의 건설에 대한 열망과 성과를 중심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 방송사들의 보도내용을 통해 대운하 건설에 대한 뉴스프레임의 특징이 나타났다. MBC 뉴스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무리한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강조하여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MBC 뉴스는 대운하 건설에 따른 국민여론 수렴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 프레임 보도비율이 두드러졌다. 반면에 KBS 뉴스는 대운하 건설에 대하여 정부의 논란이 있는 주장에 대하여 검증 없이 강조하여 전달하는 등 정부 편향적 보도경향이 많았다. ‘4대강=죽은 강’으로 왜곡한 정부홍보 동영상 문제 미보도,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거센 KDI 수요예측 결과 무비판적 보도,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과 낙동강의 오염된 준설토가 재활용 될 것이라는 보도 등 대운하 건설의 추진집단인 정부 발표만을 강조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야당과 사회·시민단체의 평균비율임.

특히 KBS 뉴스는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표출된 대표적 사회적 갈등 논란 사안인 대운하 건설 보도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아닌 중립적 보도형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BS 방송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현 정부의 우호적인 인사인 이병순-김인규 사장 체제로 출범함에 따라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인 <미디어 포커스>, <생방송 투나잇>, 그리고 <미디어 비평> 등을 폐지하거나 편성하는 등 KBS 탐사보도팀이 사실상 해체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⁴⁾

이와 더불어 KBS뉴스의 경우, 대운하 건설 방향이 중립으로 나타난 것은 뉴스보도에 대한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범국가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운하건설에 대한 찬성입장 측인 정부·여당 측이 제시한 경제, 환경, 수질의 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탐사보도는 배제한 채,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이 아닌 사건중심의 어중간한 중립적 입장으로 보도하는 자세는 사회적 갈등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될 방송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정부·여당이 갈등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정부의 영향과 규제를 받는 방송언론이 정부 쪽 주장과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전달하는 경우, 공공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중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갈등 참여자인 사회·시민단체 그리고 일반국민의 보도비율보다 정부·여당의 비율이 다섯 배 이상 높은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보도라고 할 수 없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문제는 국민에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갈등해소를 위해 범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방송을 포함한 언론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건설 주체인 정부·여당 측의 주장이나 입장만을 강조하는 보도방식의 획일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와 국민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갈등 보도에서 방송언론은 단순히 정부와 행정부 또는 여당의 주장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유리한 입장만을 보도하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민주적인 대화와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은 대운하 건설 논란과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방송을 포함한 언론이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절차의 민주성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나미수, 2004). 이를 위해 대운하 건설과 같은 사회적 갈등 이슈의 보도에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갈등에 대한 문제점과 악영향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일반시민 그리고 전문가 등 보다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대운하 건설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새로운 보도의 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방송보도의 중요성에서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뉴스텍스트의 프레임 분석을 통해 특정 이슈보도에 나타난 주요 프레임기체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둠에 따라 프레임의 효과분석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나타난 텔레비전 보도의 뉴스프레임이 실제로 수용자들의 이슈에 대한 지각이나 여론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운하 건설 보도와 관련된 수용자에 대한 효과는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되어지기를 기대한다.

14) KBS, MB 나팔수 되다 (2010.1.28). 『민주언론시민연합보고서』.

■ 참고문헌

- 강내원 (2002). 사회갈등 보도기사의 비판적 읽기: 언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프레이밍에 대한 갈루아 래티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3호, 5~44.
- 권혁남 (2001). TV방송의 사회갈등 조정역할에 관한 연구: 의학분업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5권 1호, 45~84.
- 김동규 (2000). 사회갈등 보도의 새로운 방향 찾기. 『한국언론학보』, 45권 1호, 5~32.
- 김승수(2004). 매체 산업의 구조개혁. 『2004 봄철 학술대회발표집』, 한국언론정보학회, 45~91.
- 김원용·이동훈(2005). 핵폐기장 중심 원자력 관련 보도에 나타난 매체별 갈등보도의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방송학보』, 19권 4호, 168~210.
- 김현주 (1999).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7.
- 나미수 (2004).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MBC의 전국 및 지역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6호, 157~206.
- 남재일 (2004). 『한국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형식적 사실주의의 전략적 의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310~340.
- 원만해·채백 (2007). 청성상 고속철도 관통 보도에서 나타나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199~228.
- 양정혜 (2001). 사회갈등과 의미구성하기.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48~315.
- 우병동 (2005). 절반의 진실로 갈등 증폭 말아야. 『신문과방송』, 12월, 24~27.
- 윤인진 (2008). 공익의식과 사회갈등. 『한국사회』, 9집, 119~152.
- 이동형 (2000). 관치금융 철저히 따졌어야. 금융과업보도. 『신문과방송』, 8월, 134~137.
- 이준웅·김경모 (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공정성, 타당성, 진정성. 『방송연구』, 겨울호, 9~44.
- 이재진 (2000). 원인은 뒷전, 국민피해만 강조: 의사 집단폐업 보도. 『신문과방송』, 8월 130~133.
- 이형준 (2007). 『서해교전 관련 언론의 보도성향과 뉴스 프레임 비교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양준 (2009). 집단적 갈등이슈에 대한 방송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5호, 55~79.
- _____ (2010). 공공사업 관련 사회적 갈등보도에 대한 뉴스프레임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9, 57~79.
- 임현진 (2005). 사회갈등의 발생요인 및 해결전략. 중앙공무원교육원, 제4기 사회갈등관리 과정, 42.
- 장용호 (1987). 사회운동과 언론. 『현상과 인식』, 41호, 37~72.
- 정나리 (2007). 『국내 언론의 환경이슈 보도 행태 분석: 청계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낙진 (2004). 지역신문 뉴스 프레임 비교: 핵폐기장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7, 283~330.
- 한규태·송기인 (2005). 국내신문의 환경이슈 보도에 대한 프레이밍 연구. 『한국방송학보』, 19권 3호, 288~322.
- 황치성 (2008). 갈등이슈 보도의 새로운 접근. 『한국언론재단 연구서(2008-02)』. 서울: 한국언론재단.
- Bennett, W. L. (1988).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NY: Longman Inc.
- Cohen, A., Adoni, H., & Bantz, R. (1990). *Social conflict and television news*. CA: Sage.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Gamson, W. A. (1992). *Talking poli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sh, D. (1992). Promulgating polarization: Study finds media coverage of women minorities tends to be oversimplistic, which exacerbates social strains. *Editor and Publisher*, Vol.125, No.41, 30~33.
- Herman, E., & Chomsky, N. (2002).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 정경옥 역 (2006). 『여론조작: 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 서울: 에코리브르.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eisberg, L. (1973). *The sociology of social conflict*. NJ: Prentice-Hall.
- Pan, Z., & Kosicki, G. M. (1991).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55~75.
- Reese, S., & Buckalew, B. (1995). The militarism of local television news: The routine framing of the Persian Gulf War. *Critical Studies of Mass Communication*, 12(1), 40~60.
- Ryan, C. (1993). *Prime time activism: Media strategies for grassroots organizing*. Boston: South End Press.
- Schmidt, D. (1993). Public opinion and media coverage of labor unions. *Journal of Labour Research*, Vol.14, No.2, 151~164.
- Simmel, L. (1973). *The sociology of social conflict*. NJ: Prentice-Hall.
- Tuchman, G. (January,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 660~679.
- Waren-Lewis, J. (1981). The story of a riot: The television coverage of civil unrest in 1981. *Screen Education*, 40, 15~33.
- Wolfsfeld, G. (2001). *The news media and peace processes: The middle east and northern Ireland*.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Available] <http://www.usip.org>

(투고일자 : 2010.5.31, 수정일자 : 2010.10.1, 게재확정일자 : 2010.10.4)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V News Frame based on the Public Enterprise: The Korean Grand Canal Project

Yang-June Im*

This study explores how major Korean television evening news report, interpret and evaluate the Korean Grand Canal Project(KGCP). For this research, 488 news clips regarding the KGCP are selected among the MBC, KBS and SBS daily evening news. As a resul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s of analyzing reports for MBC, brief reports for KBS, and straight news for SBS are outstanding. At the same time, the three news companies show that they are against the KGCP through the reporting attitudes. However, the most frequently broadcasted news frames is the authoritative political execution for both MBC and KBS, and the political agenda for SBS news respectively. In terms of the most frequently interviewed group for all three news is the government and ruling Grand National Party; they are the most favor of the authoritative political executions and the political agenda news frames. However, the NGO groups and the opposition parties which are against the KGCP support “Process” in terms of the frames activity. Finally, MBC speaks out the frame activity of “Process”, supporting the political opposition parties and NGO groups. On the country, both KBS and SBS speak up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supporting the KGCP, stressing frame activity of “Aspiration”. This it concludes that both KBS and SBS are short of the social responsibilities as a social media mediator for the social disput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GO groups, including opposition parties.

Keywords: Korean Grand Canal Project, News frames, Social disputes, Framing activity

* Lecturer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osun University